

통합사회에 나타난 금융 생활 설계 탐구 활동 분석*

김태환**

요약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공통과정인 통합사회 금융 영역에 나타난 금융 생활 설계 관련 활동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금융 영역과 통합사회 6종 교과서에 나타난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 상품의 특징과 자산관리 원칙을 토대로 금융 생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둘째, 금융생활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금융자산과 자산관리 원칙이 원론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여 금융생활을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본인의 삶과의 관련성이 중요한데 일상의 금융활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목표 달성의 측면, 현실성의 측면, 학생의 삶의 관련성 측면을 고려하여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경제교육, 금융교육, 금융 생활 설계

* 이 논문은 교육부의 국립대학윤석사업 사업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ador252@cnue.ac.kr)

I. 연구의 필요성

핀테크의 발전과 코로나를 기점으로 투자 열풍, 저출산·고령화와 연계된 연금 개혁 등이 사회의 화두가 되면서 금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금융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학교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 및 변화 요구로 이어졌고, 고등학교 경제 과목의 한 단원으로 다루어지던 금융 영역이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독립된 과목으로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새 정부 국정 과제에도 금융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학교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교육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학교 금융교육의 내용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는 금융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금융교육 내용은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직업 세계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 중 고등학교 공통 필수 과목인 통합사회 내에서 제시되고 있는 금융교육 내용은 금융을 필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수입을 획득하고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성인으로서 자신의 경제생활을 능동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사회에서의 금융교육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학생들의 일상을 잘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중학교 금융 영역의 내용을 심화학습하고 학생들이 직접 금융 생활을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사회 금융 영역의 탐구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교과서에 제시된 금융 생활 설계에 대한 탐구 활동은 학습한 금융 관련 내용을 토대로 금융 행위를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금융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생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의 금융 영역에 제시된 ‘금융 생활 설계’ 관련 탐구 활동의 내용을 분석하여 금융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하고 학생들의 생활과의 연계성이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 생활 설계와 관련하여 통합사회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 요소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검토 내용을 토대로 교육과정 목표 달성의 측면, 현실성 및 구체성의 측면, 학생들의 일상과의 연계성 측면으로 각각 나누어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금융 상품의 특징, 자산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금융 생활 설계의 교과서 구성 방향 및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경제교육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금융교육 관련 선행연구

학교 금융교육에 대한 대중적 관심 증가에 비교하면 사회과 경제교육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금융 교육과 관련된 내용 요소가 거의 없으므로, 관련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초등 경제교육에서는 경제 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금융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현황 분석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 금융교육 현황 검토 연구(정수진·이바름, 2022), 초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또는 초등 교사들의 금융 이해력 조사 연구(김동진·김지훈, 2021; 이윤호, 2019; 천규승·김솔, 2016; 한진수, 2013), 초등학교 사회과에서의 금융교육 내용 요소 탐색 연구(김태환·김재근, 2024) 등이 진행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금융교육 관련 영역이나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학의 개념 및 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과서 분석 연구들은 주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있는데(김상인·정진현, 2016; 김태환, 2020; 장경호, 2020; 한진수, 2020), 금융 교육과 관련된 교과서 분석 연구는 신혜원, 장경호(2014)의 연구와 최병일(2025)의 연구가 있다. 신혜원, 장경호(2014)는 경제 교과서 내의 금융 영역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의 차이, 구성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교과서 별로 어떠한

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제시하였다. 최병일(2025)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함께 등장한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의 내용 전반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성취기준 반영 여부,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공통 과정인 통합사회 금융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해당 영역의 내용이 총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금융 생활 설계’ 탐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금융교육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2. 금융 생활 설계를 위한 이론적 논의

다음 장에서 제시할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 생활 설계 탐구 활동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금융 상품의 특징과 자산관리 방법을 토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 상품의 특징과 자산관리 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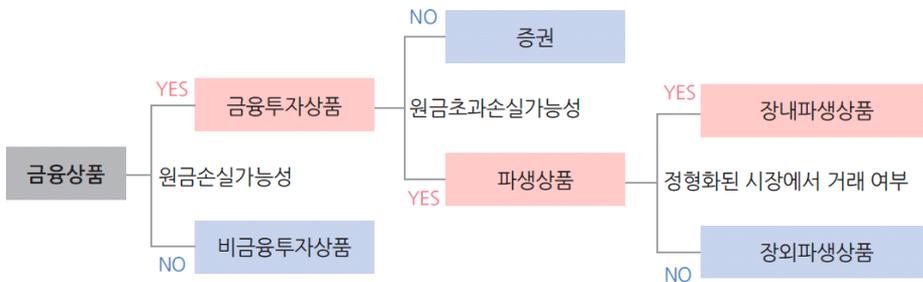
(1) 금융 상품의 특징

통합사회 교과서 금융 영역에서는 예금,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 상품의 종류와 특징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 교육과정에서 ‘금융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 교과서에도 예금, 주식, 채권 등을 금융 자산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 채권, 주식 등 세부적인 특성이 다른 금융 상품들을 금융 자산으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어서, 저축, 투자, 금융 상품, 금융 자산 등의 개념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교과서별로 금융자산의 의미를 아예 설명하지 않고 금융 상품을 소개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금융과 관련된 자산’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금융 상품과 금융자산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금융 자산은 개인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금융 상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 과정에 내용상 재무 설계의 과정에서 금융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금융 상품과 금융 자산을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된다. 개인의 금융 자산이라는 틀 안에서 금융 상품의 구성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금융 자산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해도 고등학교 수준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수업 장면에서는 적절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금융 상품의 분류



출처: 김상수 외(2024). 대학생들을 위한 실용 금융(4판). p.36.

위 그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금융 상품은 원금손실가능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금과 적금은 대표적인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상품은 다시 원금을 넘어서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지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증권에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¹⁾ 등이 포함되는데,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의 지분을 획득하는 지분증권이 주식이며,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채무증권이 채권이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은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대한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이 원금으로 한정되는 금융 상품이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자면, 예금, 주식, 채권은 모두 금융 상품이며, 이 중 주식과 채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부를 수 있다. 통상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주식, 채권, 펀드 등에 자금을 투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금융투자상품을 구입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예금에 일정 부분 돈을 넣어두었고,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투자를 하고 있다는 표현

1) 몇몇 교과서에서는 예금, 주식, 채권 외에 펀드를 소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집합투자증권을 펀드라고 부른다.

보다는 금융 상품을 가지고 있다, 또는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2) 자산관리 방법

분석 대상 6종 교과서에서는 모두 금융 상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소개에 이어 자산 관리의 원칙으로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과 리스크(risk)²⁾ 관리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므로, 수익성과 안전성은 금융 상품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그림 1]에 따르면 원금손실가능성, 원금초과손실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금융 상품이 구분되고 있다. 예금, 적금과 같이 원금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품은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며, 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신 수익성이 낮다. 주식, 채권과 같이 원금손실가능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들은 자신이 투하한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상황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선물(futures)이나 옵션(option)과 같이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가능한 상품들은 안전성이 매우 낮지만, 상황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코로나 이후 크게 유행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에도 주가 지수와 연계되어 있어서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높은 편인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수익성은 투자 수익률로 계산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매입금액 대비 얼마 정도의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했는지로 계산할 수 있다. 보통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핀테크의 발전으로 시공간을 넘어서 쉽고 빠르게 금융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경제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 중 하나인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금융투자에 들어가는 자신의 노력과 시간 등도 비용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금융교육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³⁾

2) 리스크는 손실 가능성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 자체를 의미한다.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성은 손실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 노력과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본다면 투자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수익성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사회에서도 분산투자를 강조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에서도 자산 관리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현재 교과서에서는 분산 투자를 예금, 주식, 채권에 각각 나누어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 투자를 설명하면서 비금융투자상품인 예금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리스크 감소를 위해 돈을 분산하는 행위’ 의미로 받아들이면 학교 경제교육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

리스크의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분산 투자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경기가 좋으면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차원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예금을 포함하여 자산을 구성했을 때, 개인이 소유한 금융 자산에 외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예금과 주식으로 자산을 구성했다면 경기 변동이라는 충격에 주식 변동 정도를 예금이 상쇄할 수 있으므로 좋은 분산 투자 방법이 된다. 여기서 나아가,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상관관계가 낮은 상품들을 나누어 담는 과정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별, 산업별로 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내에서도 위험을 줄이고, 일정 부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우선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통합사회2에 나타난 금융 관련 성취기준의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해당 성취기준은 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성취기준으로,

과 관련하여 좋은 선택이 된다.

4)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자의 영역에 예금을 포함하여 사용한다.

금융 생활과 관련된 내용 요소들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따라 집필되어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고 2025년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6종의 통합사회2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통합사회2의 '(3)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중 금융 관련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성취기준과 관련된 자산관리,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금융 생활 설계에 대한 교과서 탐구 활동을 분석하였다. 금융 생활 설계와 관련된 탐구 활동은 분석 대상 모든 교과서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교과서 간 탐구 활동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금융 생활 설계와 관련된 탐구 활동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교과서는 A~F로 익명처리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단원과 탐구 활동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단원과 탐구 활동

교과서	단원	탐구 활동
A	03. 자산 관리와 금융생활 (1)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설계,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금융 생활 설계하기
B	3. 금융 생활과 의사 결정 (1) 금융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설계	나의 미래와 금융 생활 설계하기
C	III. 미래 준비를 위한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설계 (1) 다양한 금융 자산과 자산 관리	나의 투자 원칙 세워보기
D	3.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의 설계 5.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	나의 미래를 위한 금융 생활 설계하기
E	4.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설계 ③ 미래의 금융 생활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나의 미래 금융 생활 설계하기
F	03.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1. 금융 생활의 설계	금융 생활 설계하기

2. 분석 방법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 내용 분석을 위해서는 일정한 준거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금융 활동 설계 탐구 활동 분석을 위한 준거들을 ‘교육 목표 달성 정도, 현실성과 구체성, 학생 삶의 연관성’으로 설정하였다⁵⁾. 교육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탐구 활동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금융 행동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현실성과 구체성의 경우, 교과서에 나타난 금융 활동이 학생들이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경제·금융 환경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고 실제적인지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학생 삶의 연관성의 경우도 이와 연계하여, 단순히 학생으로서의 금융 생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미래의 금융 행위와 연계한 내용을 다룬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현실성과 구체성의 측면은 어떠한지, 학생들의 삶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분석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제시된 탐구 활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질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과정분석을 통해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을 위해 필요한 내용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금융 상품의 종류와 특징, 자산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해당 내용이 탐구 활동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교과서 별로 제시된 활동들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현실성과 구체성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이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금융 행위가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탐구 활동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현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통합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1인으로부터 자료 분석과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았다.

5) 분석 준거를 도출하는 과정은 IV-(1)에 제시되어 있다.

IV. 연구 결과

1. 교육과정 분석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2에 제시되어 있는 금융 관련 영역의 성취기준과 이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3)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10통사2-03-03]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을 토대로 금융 생활을 설계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금융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가) 성취기준 해설

[10통사2-03-03]에서는 금융 자산으로 예금, 채권, 주식 등을, 자산 관리의 원칙으로 수익성, 유동성, 안전성 등을 다루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미래와 연관지어 금융 생활을 설계하도록 한다....(하략)...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시장 실패, 금융 자산, 국제 무역 등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는 합리적 선택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뮬레이션 또는 게임 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그 과정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출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2, p. 118

성취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금융 영역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의 핵심은 ‘금융 자산의 특징 알기, 자산 관리의 원칙 이해하기, 이를 바탕으로 금융 생활 설계하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예금, 주식, 채권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학습한 후, 수익성, 유동성, 안전성이라는 자산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을 토대로 이들 금융 상품의 비중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자신의 미래 금융 생활

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성취기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은 제시된 성취기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 생활 설계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상품의 종류와 특징, 자산 관리 원칙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성취기준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는 금융 상품의 특성과 자산 관리 원칙이 금융 생활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금융 영역과 관련하여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금융 자산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금융에서의 합리적 선택⁶⁾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생활 설계 활동에서 학생들이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 원칙에 근거하여 자신의 금융 생활을 일상과 관련지어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6종의 교과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금융 생활 설계 탐구 활동이 학생의 삶을 반영하고, 금융 의사결정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합리적 선택을 ‘간접 체험’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금융 경험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용돈을 활용하여 금융 활동을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과 소비 등에 대한 가상의 사례를 활용하여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통합사회 금융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금융 생활 설계 탐구 활동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교육목표 달성의 정도’이며, 두 번째는 ‘활동의 현실성과 구체성’, 마지막 세 번째는 ‘학생들의 삶과의 관련성’이다. 이하의 교과서 분석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 틀을 중심으로 금융 생활 설계 탐구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6) [10통사2-03-02]에는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 실패를 다루도록 하며...’(교육부, 2022, p.118)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의 합리적 선택은 시장 실패에 해당하는 키워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 자산과 관련된 내용 역시 ‘금융 상품을 합리적 선택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선택과 연결지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교과서 활동 분석⁷⁾

통합사회 6종 교과서에 나타난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C교과서와 F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의 탐구 활동은 전체적으로 ‘연령대별 과업 설정, 설정한 과업 달성에 필요한 금액, 필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계획 수립’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C교과서의 경우 분산 투자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담긴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관련된 간단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F교과서의 경우 구체적인 연령대와 특정 과업을 제시하고,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표 2> 교과서 활동 내용 요약

교과서	활동명	활동 내용
A	나의 금융 생활 설계하기	연령대에 따른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필요자금과 자금 마련 계획 작성
B	나의 미래와 금융 생활 설계하기	연령대 별로 삶의 목표와 필요 금액 작성 →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계획 수립
C	나의 투자 원칙 세워보기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설명 → 100만 원이 있을 때 예금, 주식, 채권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D	나의 미래를 위한 금융 생활 설계하기	연령대 별로 주요 과업, 소득원, 자산 관리 원칙, 투자 방법 작성하기
E	나의 미래 금융 생활 설계하기	연령대 별로 주요 과업과 재무 목표 설정하기 → 한 가지를 정하여 재무 설계해보기
F	금융 생활 설계하기	특정한 나이와 과업, 목표 자금을 제시 →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계획 수립 및 결과 예상

7) 분석 과정에서 몇몇 교과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해당 교과서만의 특징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공유되는 특성임을 밝힌다.

(1)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달성 측면

금융 생활 설계 활동에 앞서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 상품의 특징을 탐구하고,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등과 같은 자산 관리의 원칙을 학습했으므로, 이후의 금융생활을 설계하는 활동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앞서 분석한 교육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 성취기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별로 탐구 활동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탐구 활동 구성 상 4종의 교과서는 유사한 형태로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교과서의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을 일부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연령대 별 과업에 따른 금융 생활 설계

구분	재무목표	필요 자금	자금 마련 계획(예시)
10대	노트북 구입	70만 원	용돈 저축 + 세뱃돈
40대	주택 구입	7억 원	4억 원(예금, 주식)+3억 원(대출금)

출처: 2022 개정 통합사회 A교과서 탐구 활동(일부 발췌)

이 활동에서 제시된 자금 마련 계획의 예시를 보면 노트북 구입과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이 설정되어 있다.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은 매우 현실적이지만, 앞서 예금과 주식의 특성과 자산 관리 원칙을 학습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용돈 중 얼마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저축해야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금의 종류, 내용,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통합사회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서 이를 위한 탐구활동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 설계 활동에서 하나의 간단한 사례나 활동의 일부로 제시할 수 있다.

주택 구입을 위한 4억 원을 예금과 주식으로 마련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4억 원을 예금과 주식으로 모았다.’는 내용에는 금융 상품의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

나 금융 상품의 특징이나 자산 관리 원칙을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미래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제외하고 4억 원이 필요한데, 4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 중 얼마를 예금에 넣고, 주식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4억 원이라는 큰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지,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분산 투자를 통해 4억 원을 모으기가 어렵다면 주택 구입을 위한 시기를 늦추거나 필요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을 다룰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금융 상품의 특징과 자산관리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교과서와 전체적으로 활동의 흐름과 내용이 비슷한 B교과서에서 검토한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자산 관리 방법이 제시된 사례

목표	필요금액	필요기간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우선 순위)
			예금	채권	주식	기타	
해외여행	500만 원	1년	예금	채권	주식	기타	안전성>유동성>수익성
			70	10	20		

출처: 2022 개정 통합사회 B교과서 탐구 활동(일부 발췌)

표를 보면 본인의 월 소득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는 활동이 추가되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자산의 특징과 기본 원칙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D교과서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소비 지출, 양육에 필요한 비용, 노후 적정 생활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금융 계획 수립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령대 별 금융 생활 설계 과정은 앞선 교과서의 내용들과 대동소이하지만, 주요 과업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추정한 후에, 해당 시기에 중요한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과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상 앞서 학습한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과 금융 상품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는 측면에

서 교육 목표 달성에는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탐구 과정 자체는 앞서 분석한 교과서들과 유사하며, 교과서 E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과서 F의 경우 특정한 나이와 과업, 그리고 목표 자금과 기간을 설정해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묻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적금의 특징과 주식의 특징을 바탕으로 투자 결과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목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활동을 통해 금융 상품의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 적금과 주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교육과정 목표 달성에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교과서의 활동에 비해 일생에 걸친 금융 생활에 대해 조망하고 이에 대해 계획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성취기준 목표 달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2) 활동의 현실성과 구체성의 측면

교육과정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취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의 현실성, 구체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금융 상품의 특징과 자산 관리 원칙은 현실에서 금융 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되는 실제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생활 설계 탐구 활동은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융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성과 현실성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과서별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 5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표 5〉 분산 투자 과정이 제시된 사례

목표	필요금액	필요기간	포트폴리오 구성(%)			
			예금	채권	주식	기타
해외여행	500만 원	1년	70	10	20	

출처: 2022 개정 통합사회 A교과서 탐구 활동(일부 발췌)

1년 동안 500만 원이라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를 저축과 투자에 투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탐구 활동의 추가 자료에는 20대의 월 평균 소득을 24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만약 월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자를 포함하여 1년에 대략 60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므로 별다른 투자 없이도 목표 금액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탐구 활동에 추가적으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대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큰 적자 주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월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없거나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례를 조금 완화하여 10% 정도를 저축한다고 가정하고 전액 예금에 투입했다고 하면, 해외여행에 필요한 돈의 절반 정도 밖에 모으지 못하게 되므로 금융투자상품을 구입하여 목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편의 상 1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최종 금액 240만 원을 년 초에 가지고 있고 이를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24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년 수익률이 100%가 넘어야 하는데, 특별한 재능이나 운, 경제적 상황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수치이다⁸⁾.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게 되는 투자 전략이므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산 투자와 배치되는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표를 보면 예금 70%, 채권 10%, 주식 20%로 제시되어 있는데 월 24만 원의 80%인 192,000원을 제외한 48,000원을 주식에 투자해서 여행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C교과서에서도 ‘포트폴리오 투자는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식, 채권 등 여러 금융 상품에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기법이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100만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특별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생각해 보면 앞서 제시한 내용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교과서와 E교과서에서도 연령대 별로 예금, 주식, 채권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구성하고 있어서 앞서 제시한 교과서의 예시들과 동일하게 구체적이고 현실성을 갖춘 자산 관리 방법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8) 실제로는 매월 20만 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하므로 수익률이 더 높아야 한다.

F교과서의 경우 특정 연령대의 과업, 목표 자금과 기간을 제시하여 이를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구체적인 자산 관리 계획이 제시된 사례

투자 가능 금액	투자 계획	결과 예상
저축 가능 금액: 월 〇〇만 원	정기 적금 금리, 만기 등 제시	저축 원금: a원 세후 수령액: b원
가지고 있는 자금: □□만 원	주식 투자 수익률 30%	최종 수익: c원
		최종 합계: b + c

출처: 2022 개정 통합사회 F교과서 탐구 활동(일부 발췌 및 수정)

해당 교과서의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은 다른 교과서와 달리 특정한 시점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투자 과정을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예금과 적금의 비중 뿐 만 아니라 금리, 세금, 주식 예상 수익률 등을 쓰도록 하여 현실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상의 사례를 제공하여 구체적으로 금융 상품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생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토대로 금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후에 언급할 학생 자신의 삶과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3) 학생들의 삶과의 관련성 측면

금융교육을 포함한 경제교육이 긴 시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아왔던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경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경제교육은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과 경제교육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학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며, 금융교육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일상의 금융 관련 주제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교육과정 목표 달성 측면과 현실성, 구체성과 함께 금융교육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학생들이 금융을 자신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토대로 돈을 어떻게 쓰고 모을 것인지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에 이하에서는 학생들의 삶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학생들은 이미 일상에서 소비와 저축 행위를 통해 금융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금융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상의 금융 생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6종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고등학생들의 금융 생활 반영 정도

교과서	활동 내용	고등학생 금융 생활 관련 내용
A	10대~60대의 재무 목표 설정, 자금 마련 계획 수립	10대: 노트북 구입
B	20대~50대 이후의 목표 수립, 목표 달성 계획 수립	다루지 않음
C	나의 투자 원칙 세워 보기/ 분산 투자 관련 활동	다루지 않음
D	20대~60대 이후의 주요 과업, 자금 마련 방법	다루지 않음
E	20대~60대 이후의 주요 과업, 재무 설계	다루지 않음
F	30~35세의 금융 생활 계획	다루지 않음

제시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사회를 배우고 있는 현재, 각 교과서의 금융 설계 탐구 활동에서 고등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금융 생활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A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 세계로 이행할 수 있는 나이인 20대부터의 금융 생활 설계를 다루고 있다.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획득할 수 있어야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한 자금 투입을 고민할 수 있고, 투자와 관련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이 금융 생활 설계의 시작은 20대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교과서에 제시된 금융 생활 설계 활동들은 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 소득이 없고 금융 투자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받는 용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중요한 일상의

금융 활동이다. 금융의 주요 속성인 시점 간 자금의 할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들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이연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금융 행위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거의 매일 경험하고 있는 금융 행위로부터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금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학생 시기의 금융 의사 결정을 다루고 있는 A교과서를 보면 노트북 구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금 마련 계획으로 ‘용돈 + 세뱃돈’을 제시하고 있다.

〈표 8〉 고등학생들의 금융 생활 반영 사례

구분	재무목표	필요 자금	자금 마련 계획
10대	노트북 구입	70만 원	용돈 저축 + 세뱃돈

출처: 2022 개정 통합사회 A교과서 탐구 활동(일부 발췌)

앞서 제시한 분석 결과에서 해당 활동에서 금융 상품의 특징과 자산 관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수업목표 달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대 이후부터 반영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고등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수입인 용돈에 근거한 합리적 소비와 저축 행위가 곧 일상에서의 금융 생활 설계가 된다. 따라서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예시인 용돈 저축과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은 세뱃돈을 중심으로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하고 간단한 사례로 보이지만, 현재 내가 경험하는 금융 행위를 다루는 과정에서 일생에 걸친 금융 생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금융 생활 설계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금융은 크든 작든, 학생들의 삶과 일상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과정에서도 간접적으로 학생들이 금융 행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 요소도 금융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의도가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금융 생활 설계 탐구 활동이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활동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따르면 금융 상품의 종류와 특징, 자산 관리의 원칙이 반드시 금융 생활 설계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활동을 구성할 때는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학생들이 가상의 소득과 소비를 토대로 자신의 미래의 삶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관리의 과정에서 금융 상품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산 관리 원칙을 세워 미래의 '금융 생활'을 계획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차 후에 교과서 개정 시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사회 교과서가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의 교육과정 조정가로서 교육 과정에 나타난 목표와 현실에서의 금융 목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탐구 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 생활은 현실을 살아가는 학생들의 삶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습한 금융 상품의 종류와 특징, 자산 관리의 원칙을 단순한 상황을 가정하고 기계적으로 대입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의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금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 상품과 자산 관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 설계 탐구 활동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 설정한 미래가 자기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현재 금융 생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금융 상품과 자산 관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직업 세계로 나아갔을 때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고등학생들의

현재 금융 행위를 다루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 행위는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행위이므로, 현재 고등학생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금융 계획을 수립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현재의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금융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20대, 30대, 나아가 은퇴 후의 금융 생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금융 생활은 현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금융 생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학교 금융교육에서 학생들의 금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 금융 계획을 수립하는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와 경제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융 생활 설계 탐구 활동에 대한 내용 분석에 그쳤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탐구 활동을 구성해야 현실성을 갖추면서 학생들의 삶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김동진·김지훈(2021).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조사 연구. *경제교육연구*, 28(3), 119-144.
- 김상수·박경국·서지원·한승엽(202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4판). 금융감독원.
- 김상인·정진현(2016).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화 담론 분석. *경제교육연구*, 23(2), 1-23.
- 김태환(2020). 통합사회 교과서의 '시장 경제와 금융' 단원에 나타난 탐구 활동 분석. *경제교육연구*, 26(2), 131-157.
- 김태환·김재근(2024). 초등 사회과 금융교육 내용 요소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4), 559-577.
- 신혜원·장경호(2014).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금융 단원 분석. *시민교육연구*, 46(4), 1-29.
- 이운호(2019). 금융이해력 조사의 연령대별 문항 분석과 학교 금융교육에 대한 시사점. *경제교육연구*, 26(3), 1-32.
- 장경호(2020).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와 사회적 경제 교과서 분석. *경제교육연구*, 27(1), 33-48.
- 정수진·이바름(2022). 초등학생의 금융에 대한 인식과 태도. *금융교육연구*, 7, 1-30.
- 천규승·김술(2016).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금융교육연구*, 6, 83-115.
- 최병일(2025).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 분석과 시사점 고찰. *금융교육연구*, 10(1), 85-109.
- 한진수(2013). 초등학생의 금융 이해력 수준과 결정 요인. *경제교육연구*, 20(2), 39-63.
- _____(2020).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분석: 성취 기준 해설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40(1), 101-126.

[2022 개정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구정화·오정준·이재현·이진희·강정구·송훈섭·홍용기·김형남·최지나·송성민·김태환·윤예린(2022).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박윤경·전보애·추정완·한보라·범영우·이유구·최준화·강병희·이성국·채나미·김주환·심소

현(2022).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안재섭·박지운·박영경·이철욱·신복숙·최광희·김신철·유상철·고경수·황재성·박경일·김부
현(2022).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이영호·박보람·이우평·최도성·서정일·윤정현·주우연·조명훈·하진병(2022). **고등학교 통
합사회. 비상교육**
정창우·문일호·신종섭·이주은·박홍인·전정재·홍정민·박용우·김현정·박재현·김봉식
(2022).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앤**
조지욱·이정식·이효건·엄정훈·김경오·송민구·강은경·강혜원·노유리·이호균(2022). **고등
학교 통합사회. 아침나라**

Abstract

A Study on Designing Financial Life Activities in Integrated Social Studies

Kim, Tae Hwa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and suggest improvements for financial life planning activities presented in the financial domain of the integrated social studies curriculum, which is a part of the common course in high school education. To this end, financial life planning activities included in the financial domain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nd six types of integrated social studies textbook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curriculum emphasizes financial life planning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products and the principles of asset management, there were limitations in achieving these educational goals. Second, since financial life is closely related to students' daily experiences, it is essential that learning activities reflect real-life situations; however, the analysis showed that financial assets and asset management principles were applied only in a theoretical manner.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 designing their financial lives considering their present and future, the connection with their personal lives was insufficient, as everyday financial activities were not adequately reflec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concludes that financial life planning activities should be designed with consideration of three key aspects: achieving educational goals, reflecting real-life contexts, and relating to students' own lives.

Key words 2022 Revised Curriculum, Integrated Social Studies, Economic Education, Financial Education, Financial Life Design

투고 2025. 10. 31.

심사 2025. 11. 17. - 12. 12.

게재 2025. 12. 12.

*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dor252@cnue.ac.kr)